

주보

2026. 7. 26.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엄태욱(목회)**

김윤수(교무) 차진호(청년·개척)

◆ 2026 표어 ◆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 2026 교회목표 ◆

1.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2.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3.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교단 연합·하느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주 일 예 배 순

Sunday Worship Service

2026. 7. 26.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Invocation President

찬송 8장(통9장) 4절 다같이(일어서서)

Hymn Hymn No. 8 v. 4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1부: 325장 2·3·4부: 70장 주일저녁: 429장 다같이

Hymn (통359장) (통79장) (통489장) All Together

기도 기도자

Prayer Prayer

성경봉독 사회자

Scripture Reading President

1부 빌(Phil.) 2:19~24

2·3·4부 시(Ps.) 32:7~8

5부 대학청년 출(Exod.) 14:26~27, 30~31

주일저녁 삼상(1Sam.) 17:36~37

찬양 찬양대

Anthem Choir

설교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바람직한 신앙인 임태욱 목사

An Exemplary Believer Rev. Taewook Um

2·3·4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영훈 목사

God, Our Refuge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주의 손을 잡으라 신에스더 목사

Take Hold of the Lord's Hand Rev. Esther Shin

주일저녁 다윗은 알고 사울은 모르는 것 서광석 목사

What David Knows and Saul Does Not Rev. Gwangseok Seo

기도와 결신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헌금기도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주기도문(635장)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2026. 7. 29.

수요일예배순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30분 김형진 목사 2부(스크린) 14시 3부(수요찬양) 19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2부: 310장(통410장) 다같이
 기도 1·2부: 김건수 장로
 성경봉독 1·2부: 엡(Eph.) 3:16~21 3부: 마(Matt.) 21:40~43 사회자
 찬양 1·2부: 베데스다 찬양대 3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진정한 충만 1·2부: 이영훈 목사
 열매 맺는 백성 3부: 신에스터 목사
 헌금기도 1·2부: 최일락 안수집사

2026. 7. 31.

금요일성령대망회순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 회 / 신효영 목사 20시 30분
 기도 정선석 장로
 성경봉독 왕상(1Kgs.) 21:1~2 사회자
 찬양 갯세마네 찬양대
 설교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 임태욱 목사

2026. 8. 1.

토요일예배순

〈3대 온 가족 토요일예배〉

사 회 / 정용훈 목사 오전 7시
 기도 윤권희 장로
 성경봉독 눅(Luke) 1:1~4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예루살렘 연합찬양대
 설교 사실 위에 세워진 믿음 이영훈 목사
 헌금기도 최종문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베 다 니	강 내 우	여호와 사바오트	주일저녁	에벤에셀	윤 현 진	주 날 인도하네
주일2부	베들레헴	데이비드 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수 요 1부	베데스다	김 호 식	거룩 거룩 거룩
주일3부	예루살렘	김 광 현	주는 나의 피난처	수요찬양	호 산 나	윤 규 섭	그가
주일4부	나 사 렷	이 중 진	피난처 있으니	금요일대망회	갯세마네	박 상 현	문들이 머리 들라
5부 대망회	임마누엘	이 수 범	은 천하 만물 우러러	토요일예배	가 브 리 엘	이 용 중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
 라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
 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
 하여 혼계하리로다”

(시 32:7~8)

사 회

1부 07:00 박 용 식 목사
 2부 09:00 정 용 훈 목사
 3부 11:00 김 형 건 목사
 4부 13:00 이 종 태 목사
 5부 14:30 최 성 민 목사
 주일저녁 17:00 정 성 조 목사

대표기도

1부 이 수 국 장 로
 2부 조 건 열 장 로
 3부 김 재 수 C 장 로
 4부 이 현 재 장 로
 5부 정 인 환 장 로
 주일저녁 우 광 원 장 로

헌금기도

1부 박 현 선 안수집사
 2부 백 형 주 안수집사
 3부 김 윤 준 안수집사
 4부 박 희 월 안수집사
 5부 장 승 범 성 도
 주일저녁 임 기 택 안수집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God, Our Refuge)

시(Ps.) 32:7~8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외로움을 잊기 위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위로를 찾지만 이는 일시적인 뿐 마음 깊은 곳의 공허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친히 부르시며 참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외로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1. 나의 은신처 되신 하나님 (God, Our Hiding Place)

인생에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와 피난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시 46:1, 시 91:2). 그러므로 낙심되는 순간에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시 23:4). 이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떠난다 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2. 구원자 되신 하나님 (God, Our Deliverer)

하나님만이 모든 절망과 슬픔, 고통과 외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홍해를 가르쳐서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출 14:13~14).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시 34:17).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3. 인도자 되신 하나님 (God, Our Guide)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하시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길로 이끄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시 25:12).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른길로 이끌어 주십니다(출 13:21~22).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길에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십니다(히 12:5~6). 이러한 훈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며 평생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배

1.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7월 넷째 주 새벽예배-일사: 7월 27일(월)~7월 31일(금) 새벽 5시 30분 / 장소: 대성전
설교: 이영훈 목사(28일 제직특화), 신의규 목사(27일), 엄태욱 목사(29일), 성영목 목사(30일, 31일)

모 집

1. 교무국 찬양특별교구 베데스다 찬양대(수요1부예배) 찬양대원 모집-문의 ☎ 02-6181-6702, 6704
자각: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받은 성도 / 모집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2. 교무국 찬양특별교구 호산나 찬양대(수요찬양예배) 찬양대원 모집-문의 ☎ 02-6181-6702, 6704
자각: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받은 성도 / 모집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3. 한세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원 후기 신(편)입생 모집-문의 ☎ 031-450-5188~9
접수기간: 7월 30일(목) 오후 3시까지 / 면접 및 실기고사: 8월 7일(금)
4. 여의도순복음영산신학원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문의 ☎ 02-6181-7715
모집과정: 신학 연구 과정·목회연구과정·평신도 지도자 과정 / 모집기간: 8월 21일(금)까지

안 내

1.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제90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하계수련회
일사: 7월 27일(월)~7월 28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 장소: 바울성전
3. 제50회 전국초교파 여성금식 기도대성회
일사: 7월 28일(화)~7월 31일(금) 3박 4일 / 장소: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 및 부속성전
4. 교회학교 2026년 하계수련회
초등4, 5, 6부: 7월 31일(금)~8월 2일(주일) / 중등부: 8월 7일(금)~9일(주일) / 장소: 영산수련원
5. 2026년 제23회 장로수련회
일사: 8월 28일(금)~8월 29일(토) 1박 2일 / 장소: 소노벨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 강사: 이영훈 목사 외
6. 신앙예 8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성경공부 및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8월부터 수요2부예배는 '3천 기도 용사와 함께 하는 오순절 기도학교'로 오후 1시에 세계선교센터 1층 102호에서 진행됩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8/2, 8/5, 8/7, 8/8) 대표기도

성찬예배(8/2)						수요예배(8/5)	전권식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금요성령대망회(8/7)	박윤석
윤호현	전용선	문두석	성태환	이원봉	장일봉	토요예배(8/8)	유경태

▣ 교회 대표전화 (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자녀가 기대하는 부모의 모습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좋냐고 물으면, 대답은 종종 어른의 짐작을 벗어납니다. 용돈이나 좋은 옷, 장난감을 챙겨주는 부모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자녀들이 말하는 기준은 대개 다릅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이 바라는 부모는 내 앞에서 다투지 않는 부모,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질문에 성의껏 답해 주는 부모, 성적이 나빠도 애쓴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 때로는 친구처럼 곁에 있어 주는 부모였습니다. 자녀가 바라는 목록 어디에도 물질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주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부터 눈여겨봅니다. 물건은 잠깐 손에 머물지만, 부모의 태도와 사람됨은 자녀에게 그대로 새겨집니다.

자녀는 이제 막 싹을 틔운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별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 잎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그 별은 부모의 표정과 말투,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입니다. 자녀는 훈계가 아니라 부모의 하루를 보며 배웁니다. 무심코 흘러 보낸 오늘 하루마저 자녀가 평생 기억한다는 사실을 정작 부모는 잊고 지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자녀가 하루 대부분을 부모 곁에서 보내는 시절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룰 일도, 목소리가 높아질 일도 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자녀가 부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학에는 좋은 것을 사 주는 부모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가정의 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교회 대표번호 ☎ 02-6181-9191